

찬양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행복이 넘친 '특별 금요철야 찬양예배'와 '온전한 믿음' 말씀으로 충만했던 '남·여선교회, 기도제물연합회 헌신예배' 소식.

참마음을 이루려면 (1)

범사에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고 진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참 자녀가 되려면 참마음을 이루어야 한다.

되새기는 말씀의 은혜와 감동 ~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렸던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을 통해 제시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지름길.

“하나님께서 새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간경화, 신부전증으로 죽을 직전에서 새 생명을 얻은 김경철 성도와 손수건 기도로 뇌졸중을 치료받은 몽골 다와후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842호 2018년 6월 1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 성령으로 충만했던 ‘특별 금요철야 찬양예배’



지난 6월 1일 금요철야예배 2부는 GCN 방송(www.gcntv.org)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방송 되는 가운데 국내외 성도들이 함께하는 ‘특별 금요철야 찬양예배’로 드렸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기억해 그 사랑을 되새기며 매주 철야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1부는 예배, 2부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다.

이날 예배에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프랑스, 콜롬비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파키스탄, 그리고 국내 지교회 교역자 및 성도들도 함께하였으며, 예능위원회 ‘파워워십팀’과 ‘천상의소리선교단’의 코러스와 함께 ‘주를 앙모하는 자’, ‘불길 같은 성령이여’, ‘JESUS’,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등 찬양과 기도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특별 찬양예배 인도를 맡은 이수진 목사(교역자회 회장)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 민족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앞세워 찬송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선의 대반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찬양을 이어갔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믿음으로 올린 성도들은 감사의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대로(시 69:30~31)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행복,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득 안고 돌아갔다.

한편, 이수진 목사는 2000년부터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 해외 연합대성회 시 성령의 감동함으로 회중찬양을 인도하여 큰 은혜를 끼친 바 있다.

## 2018 남·여선교회, 기도제물연합회 헌신예배 드려



지난 6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 ‘2018 남·여선교회, 기도제물연합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헌신자들은 남선교회총연합회(5개 연합회, 16개 선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5개 연합회, 19개 선교회), 기도제물연합회(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18개의 기관)를 비롯해 전국 43개 지교회의 남·여선교회 회원들이다.

GCN방송(www.gcntv.org)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방송 되는 가운데 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 송석길 장로의 사회로 기도제물연합회 회장 오세영 권사의 대표기도, 마산만민교회 여선교회 회장 김성희 집사의 성경 봉독이 있었다. 그 뒤 마음을 다해 준비한 대표자 특송(아무도 알 수 없었다네)에 이어 헌신자 전체 특송(빛나는 물결)이 진행되었다.

강사 정구영 목사(전 서울여대 총장)는 ‘온전한 믿음’(히 10:22)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타난 회한한 일에 대해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심과 욕심, 간음과 정욕, 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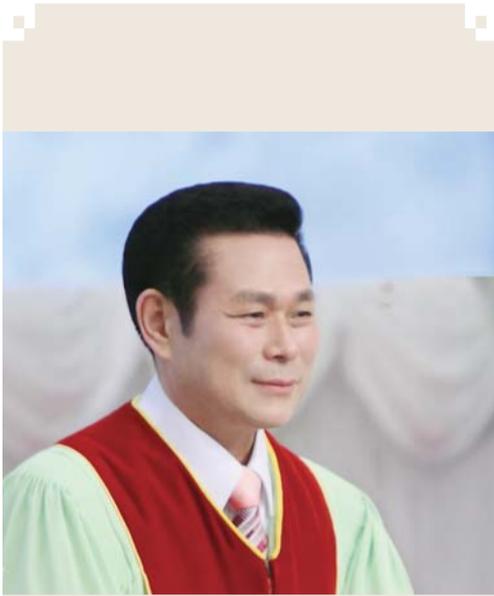
하는 마음 등이 큰 악임을 깨달아 벗어나 믿음으로 참마음을 이루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야 할 것”을 전했다.



# 참마음을 이루려면 (1)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22)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경작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려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참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말하며,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참마음을 이루셨는지요? 자신이 만들어놓은 진리의 기준과 생각에는 참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행함은 사랑과 거리가 멀고, 선이라 생각하며 말하지만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 판단 정죄가 담겨 있기도 하지요.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 1. 자신을 진리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 1) 진리의 기준인 선의 단계와 잘못된 진리의 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차원은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선의 1단계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는 않지만 감정을 속으로 눌러 참는 단계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것도 선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차원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선하다'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선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깊은 선의 차원까지 마음에 이루어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의 2단계는 악을 악으로 대항치 않고 마음에서 어떤 감정도 품지 않는 차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으며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감정이나 악한 생각이 동원되지 않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선의 3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이 나오는 차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더 깊어지면 마침내 악한 자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차원에 이르는데, 바로 선의 4단계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기준에 솔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맞추어 진리의 틀을 만들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진리의 틀

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에만 담아서 자신이 이론 만큼의 마음을 바탕으로 또 다른 진리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진리의 틀을 많이 만들다 보면 자칫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에 대해 알고 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진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진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은 인정하고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게 되지요. 중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함만 가지고 결코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진리의 틀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문자적인 의미와 형식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은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두루 살피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만을 가지고 옳다 주장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선의 차원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잘못된 진리의 틀부터 발견하여 깨뜨려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할 때 '자기'를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불같이 기도해 나가면 잘못된 진리의 틀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선이 점점 더 깨달아지게 됩니다.

### 2)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기도도 충성도 별로 하지 않는 저 사람이 왜 나보다 인정받고 칭찬받지?' 합니다. 그러다 서운한 마음이 틈타고 결국 낙심해 버리지요. 자신이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열매가 주어지지 않으면 낙망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함도,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그에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언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참마음을 이루려면, 첫째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의 선을 이뤄야 하는데  
먼저는 자신을 진리에 비취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이 없는 큰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며, 상대를 믿고 신뢰하는 참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중에서

합당한 열매로 축복하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으로 받지 못한다 해도 장차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진정 믿고 소망한다면 혹여 자신이 충성한 만큼의 칭찬이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결코 서운해하거나 낙망할 것이 없지요.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행할 뿐입니다(눅 17:10).

만일 서운하고 낙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행악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도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시 37:1), 하물며 내가 행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 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에도 영적인 애통과 육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한 애통, 영혼을 위한 애통,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나 자기 악으로 인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남과 비교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쉬워 애통합니다.

자기 악 속에서 하는 애통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담겨 있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악을 발견해 정녕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져 철저히 통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애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진정한 변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윗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먼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좋은 것을 양보합니다(창 13:9). 주된 생업이 목축이었던 그 당시에 집안의 흥망이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정임에도 선뜻 양보하지요.

이와 달리 자신의 유익 앞에서 그것을 지키고자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심지어 궤계를 꾸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각각 지체인(롬 12:5)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을 닮아 서로를 아껴주고 양보하는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번째,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마음입니다.** 양보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포기하여 그 유익이 상대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것은 이런 양보의 차원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지요. 상대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더 앞서가도록 자신을 희생하여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지 양보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유익

을 구해 주고 상대가 잘되도록 도와주려고 하지요. 범사에 이런 마음을 좇는다면 그런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당연히 사랑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높아질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상대가 나보다 더 축복받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 함께한 일에 대해 상대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도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이루려면 시기, 질투, 미움 같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남을 해아리고 수군거리며 판단, 정죄하는 모습은 흔적도 없이 버려야 하지요. 더욱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고 인정받으며 칭찬받을 때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야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상황에도 큰마음을 가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큰마음을 가진 사람은 설령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연단 중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사랑이 변함없기에 연단도 신속히 통과해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지요.

반면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요동하고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쉽게 빠치고 서운해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됐을 때 서운해하고 낙망합니다.

상대를 품거나 포용하지 못하니 화평을 이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주장만 내세우려 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며,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감정을 내고 더 나아가 무리에서 홀로 이탈하기도 합니다. 대화로 풀어가는데 것이 아니라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빠치고 서운해하지요. 설령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더라도 결국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 주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든 요동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신다 해도 조금의 서운함이나 오해가 없었지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이 없는 마음이 곧 큰 마음입니다. 변개하는 마음은 작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 그릇이 작으니 주변으로부터 조그마한 영향만

와도 이내 변개해 버리고 이유를 대지요. 이처럼 마음 그릇이 작으면 외부적인 작은 요인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만,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주변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에 정한비를 변개함 없이 행해나갈 수 있지요.

그러므로 변개하는 원인은 바로 자신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에 진리가 임해 있는 진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리 큰 유익이 온다 해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 사울은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변질시켰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서 잡아왔고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유로 살려왔지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그럴 듯하고 좋아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전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란 명령이나 지시를 한 사람의 의도에 맞추어 정확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사심, 욕심, 거짓, 교만 등이 있으면 이 육의 속성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못하지요. 또는 자기 그릇 크기에 벅찬 일을 만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해놓고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떤 육신의 생각도 동원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순종하면 설령 자신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유익을 좇아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불순종하게 됩니다. 혹여 변개하지 않았다 해도 이후 마음에 갈등이나 미련, 아쉬움 같은 것이 있었다면 변개하는 속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참마음을 이루려면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마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혼자 다짐했던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지켜 나가야 하지요. '이것쯤이야' 하며 쉽게 변개하고 넘겼던 일들이 마음 안에 변개함이라는 속성을 자라나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개함이 없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신속히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진실한 참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간경화와 신부전증으로, 죽음 앞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김경철 성도 (71세, 3대대 24교구)

2015년 10월, 지인의 전도로 만민중앙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 등록했지만 주일에 배만 겨우 드릴 뿐 교회 밖을 나가면 예전처럼 술과 담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2016년 9월, 지병으로 앓던 통풍이 도지고 말았지요. 처음에는 민간요법을 동원하니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썩은 것처럼 까맣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능의 무안단물을 환부에 바르고 예배시간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지요. 며칠 후 엄지발가락 환부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 모습을 회개하며 당회장님의 ARS(자동응답

서비스)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곧 지혈되었고, 더러운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출혈과 함께 빠져나가 사살이 빠르게 차올라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후 저는 술,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했지만 얼마 후 또다시 취하고 말았지요.

결국 2017년 8월 말, 컨디션이 좋지 않고 식사하기가 힘들어 며칠 잘 먹지 못하던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해외에서 살고 있기에 혼자 지내다 보니 일어난 일이었지요. 때마침 연락이 안 된다며 찾아온 지인의 도움으로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되찾았으나, 복수가 심하게 차고 신부전증 증세까지 나타나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제가 며칠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습관처럼 술을 마셔왔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루에 소주 두세 병씩은 꼭 마셨지요. 각종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간경화로 인해 간은 거의 해독을 못하는 수준이고 신장 기능은 10% 정도만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핏뇨로 인해 저는

바로 신장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전도하신 집사님이 산상기도 중이신 당회장님께 급히 기도 요청 서신을 올려 주셔서 권능의 기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칠을 넘기기 어렵다던 의사의 말과는 달리, 신기하게도 간과 신장 수치가 빠르게 회복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뒤 담당 교구장님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었을 때 통증이

사라지면서 소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요. 또 이틀에 한 번 5시간씩 신장 투석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교구장님에게 다시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에는 신장 수치가 거의 정상이 되어 한 달 만에 투석을 종료하고, 간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 10월 초에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는데 퇴원하고 3일째부터 식욕이 돌고 소화도 너무 잘되어 하루에 대여섯 번씩 식사를 하니 몸이 급속히 회복되었습니다. 퇴원 당시 온몸이 새까맣고 뼈만 남아 산송장 같았던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후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좋아져 지금은 65kg의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음뿐 아니라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뇌졸중을 치료받아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다와후 성도 (64세, 몽골만민교회)

▶ 다와후 성도(맨 왼쪽)와 딸, 손주들, 사위.



2015년 1월, 뇌졸중에 걸려 뇌출혈로 쓰러진 뒤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왼쪽 눈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고 시력도 나빠졌지요.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으니 글씨도 쓸 수 없고 혼자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늘 약을 달고 살았지만 몸은 여전히 제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저는 이웃인 난살마 집사님의 전도로 몽골만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쫓궂궂 잘 들어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사람이 당회장 이재

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는 것을 보며 저 또한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1월 25일, 교회에서 진행된 집회 때 담임 박재익 선교사님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시자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 너무 신기하고 기뻐졌지요. 이후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정성껏 받으며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게 되는 등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28일, 권능의 손수건 집회 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주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시력도 좋아지고 뇌졸중의 증상들이 모두 사라져 건강한 몸이 되었지요. 할렐루야! 이제는 혼자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각종 예배와 기도회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제 삶에 변화와 행복을 선물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시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동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선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